

<<원효와 노자>>에 대한 논평

이 희 재(광주대학교)

최유진 교수의 <<원효와 노자>>는 원효연구의 또하나의 지평을 넓힌 논문이다. 그는 원효의 여러 저술속에 나타난 老子的 표현을 통해 원효가 이미 노자의 사고방식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는 여러 사례를 문헌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 언어관에 대한 同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원효자신의 노자 혹은 장자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이 단지 그 문장상에 있어서의 활용을 통해 이야기하기 때문에 약간은 공허한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또 하나의 약점은 노자의 표현방식을 사용한다고 해서 과연 원효사상과 노자사상의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든다. 예컨대 현대 한국의 기독교에서 '기도' '장로' '지옥' 등을 비롯한 이미 불교에서 사용한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불교와 기독교의 사상적 동일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道'에 대한 경우도 동양사상 상호간의 특수성을 넘어서면 보편성이 있겠지만, 불교의 '도'라는 용어에 앞서 이미 도교적인 개념이 있었으며 그 개념을 통해 불교를 이해시켰던 것이 중국초기불교의 상황이었을 것으로 본다. 물론 원효의 경우는 격의불교의 시대를 벗어나 불교의 정체성이 분명해 졌다하더라도 불교문헌속에 내재한 노자적 개념은 원효만의 경우가 아니라 한역경전 일반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도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중국 선종의 경우 이미 ‘不立文字’를 그 주요한 성격으로 하는 만큼 이미 노자의 ‘無言之教’와 뜻을 같이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원효 교학의 특성은 노자적 ‘離言’보다는 언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依言’에 그 핵심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원효의 和諍의 논리를 유불선 三敎에까지 확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최유진 교수의 원효연구에 있어서의 한 입장이라고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불교의 百家만이 아닌 三敎에까지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다.

다시말해서 원효의 저술속에 산견되는 노자의 문장과 표현방식에 주목해서 펼친 이 논문은 철저히 문헌에 근거해서 기술하고 있지만, 평자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원효의 삶에서 보여준 자신의 빛을 들어 내지 않고 민중들과 함께 한 ‘和光同塵’적인 면이나 無碍行은 불교적 보살행이기도 하지만 어찌면 장자적 자유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그의 아들 설총이 한국의 유교단체에서 배향하는 동방 18현 가운데 제1인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 원효의 삶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화쟁의 논리는 불교를 넘어선 外教에 확대될 수 있음을 이 논문은 암시하고 있다.